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격 시행 닭고기 수입 견제 효과 기대

쇠고기에 이어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지난 12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축산물 생산과 판매단계까지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서 본회를 비롯, 축산관련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닭고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기존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만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내용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정해지면서 이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김치류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닭고기 수입은 지난 1997년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 9만7천톤의 닭고기가 수입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 수입량은 전체 닭고기 시장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양계산업을 위협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HPAI가 발생되면서 현재는 전체 소비량의 15%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와 한EU FTA,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될 경우 수입량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되는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닭고기 수입을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치킨 등 배달되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해당되며, 만약 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에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 된 이후 둔갑판매 등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단속요원의 활동이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감시·감독업무를 담당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조화를 이뤄 원산지 표시제

가 기틀이 잡힐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일부 도(道)에서는 원산지 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모두 감시요원이 되어 음식점 표시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주변국의 잦은 발생 심상치 않다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아시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발생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유입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양계인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12월 현재까지 48개국에서 6,506건이 발생하였으며, 아시아가 21개국(4,673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 15개국(616건), 아프리카 12개국(1,217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발생양상을 보면 2003, 2004년을 기점으로 발생이 잦던 것이 그 이후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8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홍콩, 중국 등에서 발생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태국에서의 SI 발생과 함께 경계수준을 '관심단계'로 상향조정하고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발생이 잦아지면서 동남아 및 중국·인도 지역의 해외여행 자제는 물론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방역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사육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차레에 걸친 발생에 있어서 감염원이 철새로 좁혀졌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철새도래지 주변 방문금지는 물론 외출후 반드시 소독을 하고 내·외부인들의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서는 주변국들의 발생을 마치 혐오스런 장면을 담아 국내에서 곧 발생할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소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언론사에서는 방송 자체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송을 할 경우에는 과장보도를 피하고 사실 보도만을 내보내야 할 것이다. 농장은 농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분회에서는 시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금년 이후로는 SI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2009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9)

오는 9월 9-12일 4일간, 대전무역전시장에서

2009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7)가 오는 9월 9~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친환경 축산, 안전한 축산물'을 주제로 대전소재 대전무역전시장(KOTREX)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박람회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이름이 알려진 박람회들을 보면 미국 아틀란타양계박람회(International Poultry Expo, 태국 VIV아시아 축산박람회(VIV Asia 2009), 독일 하노버 축산 박람회(Euro tier 2008)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아틀란타 양계박람회를 제외하고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각 대륙별로 특색있게 구성되어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아틀란타 양계박람회는 양계 단일 축종으로만 개최되는 유일한 박람회로 전 세계 대부분의 양계관련 제품 및 기자재들이 선을 보인다.

금년에는 그동안 구제역, AI 등으로 개최를 중단해 오던 일본 전통의 나고야 축산박람회(6월 8-10)가 부활되어 개최되는 등 각 나라에서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다. 이 밖에 ILDEX, 각종 심포지움 등이 각 국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게 된다.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지난 1991년 11월 축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본회가 주관하여 한국양계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선을 보인 뒤 1999년부터 양계 단일업종에서 양돈, 낙농, 한우 등 종합축산박람회로 확대되어 이번에 10회째(축산박람회로는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장소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겨 개최되었지만 당시 시설이 열악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와 날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관계로 전시회에 참가했던 참가업체는 물론 참관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저널리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으로의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외국업체들이 많이 참여했던 반면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박람회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대전은 지리적으로 중간지역에 위치해 국내참관객들이 모이기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인천 국제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외국 방문객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9년 박람회는 이 모든 것을 보완하여 다시 대전에서 개최기로 결정되면서 세 번째 시험 무대에 서게 되었다. 2007년 개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면서 서울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대전에서 개최되는 만큼 2005년, 2007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대전이라는 이미지를 살린 적극적인 해외 홍보활동이 따라주어야 한다.

9개월 남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대회를 재 점검하고 꼼꼼히 계획을 세워 진정한 국내축산을 부각시키고 해외에서 부러워하는 박람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